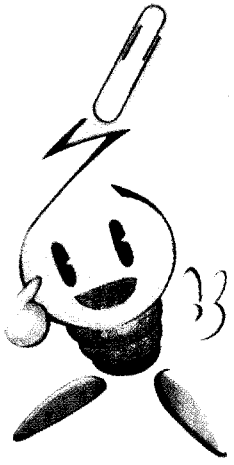


발명 영재 양성의 장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 발명계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 있다.
미래 발명계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대회와 국내·외 발명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학교발명협회'가 바로 그 곳이다. 한국학교발명협회의 모토는
'잘 키운 한 사람의 발명 영재가 100만명을 먹여 살린다'로,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영재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영재만을 우선시 해 다른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재가 영재의 역할을 다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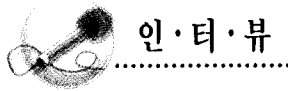


한국학교발명협회는 10만 발명꿈나무 육성을 목표로 발명교육 학습절차를 개발하고 국내·외 각종 발명교육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발명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과 다른 나'를 발견하고 '함께 사는 나'를 인정해 조화롭고 유능한 발명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학교발명협회는 101개에 이르는 전국발명공작교실 운영,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발명지도자 육성(연간 교사 1,400여명, 일반인 1,000여명 등), 어머니 육성, 발명교육 방법 모색, 국내·외 발명교육행사 참여, 회관·문화원·도서관 등지의 지원 활동 등을 기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교발명협회는 오는 2003년 1월에 있을 '2002 겨울방학 일본탐방창조활동'과 2003 전

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매년 행사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발명 영재로 거듭났듯이 이번 행사들 역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발명 교육의 저변 확대와 함께 국민 전체의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김 두 선(한국학교발명협회 회장)

협회 교육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누구나 한가지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기는 타고난 재주와 길러진 재주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요. 우리 협회는 영재는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영재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영재 교육이 바로 발명의 씨앗을 기르는 것이죠. 추후 영재 발굴을 위해 DNA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영재로 태어난 아이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육성 또한 중점을 두어 창조성 교육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발명 교육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단체나 다 그렇듯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발명 꿈나무 양성은 긴 안목으로 보면 기업인 육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업 역시 함께 할 필요가 있죠. 각 유관단체가 연계되어 입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다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시설과 물질 등 모든 면을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떠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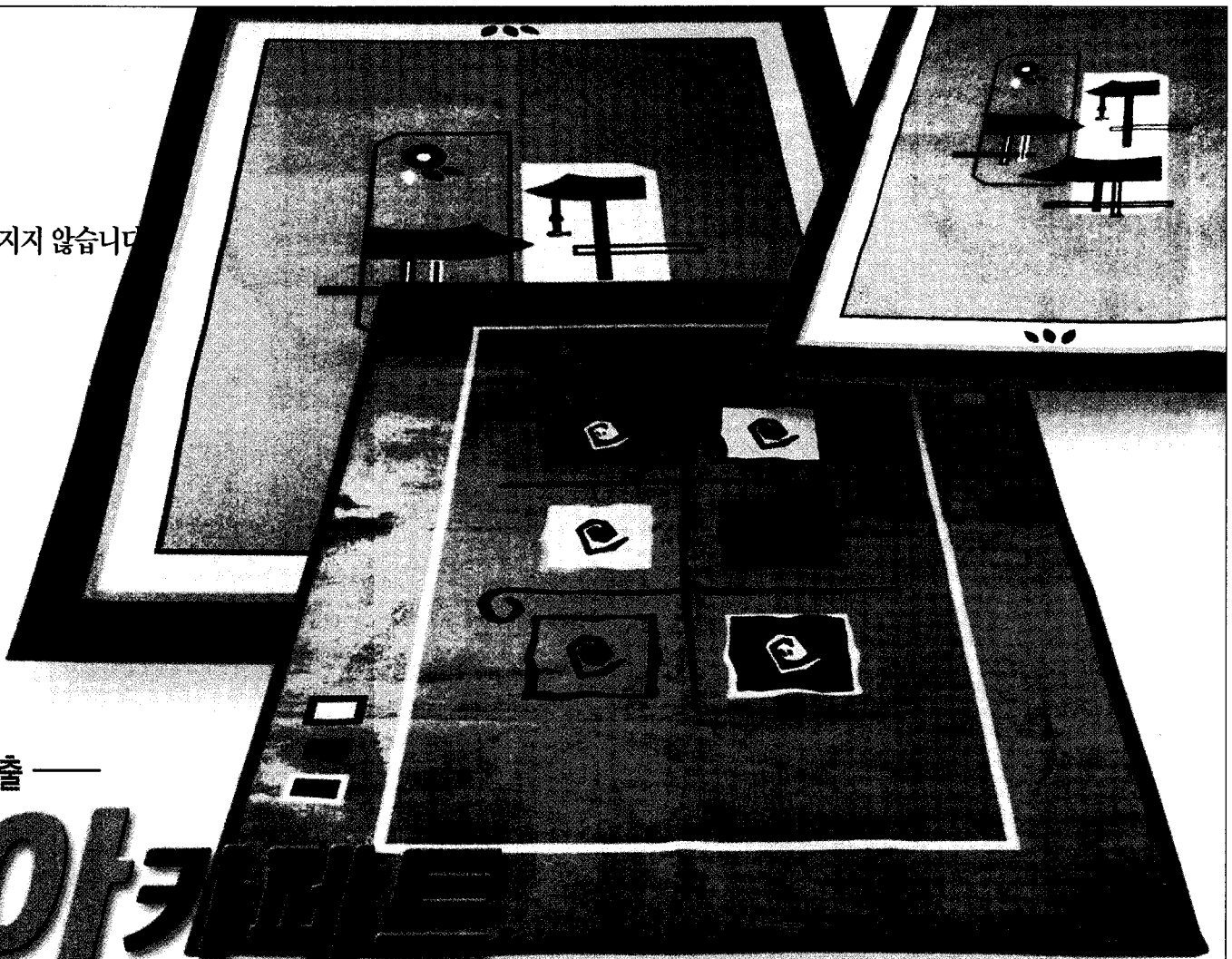
발명 꿈나무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명은 집념입니다. 에디슨이 1%의 아이디어와 99%의 노력을 강조했듯이 우리 학생들 역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땀흘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발명은 기초과학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지식 저금통장을 만들어 많은 양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기록하는 자세를 길러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벨보아캐페트의 장점

- 소재 : 면 50%, 아크릴 50%
-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 바다면 밀림방지 가공으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 오염물질 처리가 용이합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 제 85-269
 실용신안등록 출원: 제 20-2000-0036503
 의장 등록 출원: 제 85-288
 의장 등록 출원: 제 30-2000-0032725
 의장 등록 출원: 제 93-36003
 의장 등록 출원: 제 93-3753



포근하고 품위있는 겨울 공간 연출 —

벨보아캐페트

